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 95 청지기훈련 *

새로운 마음과 희망으로 청지기훈련 시작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청지기훈련 전체모임

개인 영성훈련, 관계 훈련, 공동체 훈련의 필요성 강조

95 청지기훈련의 막이 올랐다. 예년과 달리 각 직분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직분별 훈련을 강화한 금년도 청지기훈련이 지난 25일(수) 수요2부예배와 함께 시작됐다.

청지기훈련 전체주간으로 정한 이날은 직분자 전원과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였다.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작된 청지기훈련에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첫째 시간인 수요2부예배로 요한계시록 11장 10-13절까지의 강해를 통해 우리가 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증인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위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계속된 둘째 시간에는 경건의 훈련에 관하여 말씀하며 금번 청지기훈련의 목적과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 했다. 경건의 훈련은 곧 영성훈련이며 영성훈련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우리 인격 속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에



① 내적인 훈련, ② 외적인 훈련, ③ 공동체훈련이 있으며 내적인 훈련은 개인적인 훈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단 한 가지의 길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식훈련과 말씀공부 훈련, 묵상 훈련, 찬양훈련, 침묵훈련 등이 필요함을 이야기 했다.

두번째는 외적인 훈련 즉 이웃과의 관

계의 중요성과 우리가 행해야 할 주는 훈련, 삶의 단순화 훈련, 소유하지 않는 훈련과 봉사훈련, 함께 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영성훈련시 훈련이 율법화되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며 방편임을 강조했다.

세번째 공동체 훈련에서는 예배훈련을 강조했다. 10분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돌이키는 훈련과 봉사훈련, 함께 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영성훈련시 훈련이 율법화되어서는 안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며 방편임을 강조했다.

청지기훈련은 계속해서 4차 까지 모인다. 2월8, 9일은 1차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훈련이, 2차는 2월 25, 26일로 청년과 대학생, 전도회, 차량관리부 및 교회직원, 3차는 2월 22, 23일에 교구일꾼 및 새가족양육위원, 4차는 교사와 찬양대원의 훈련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한편 교회에서는 직장에서 바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회 시작 전에 저녁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초에 각 직분별로 모이는 청지기훈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되겠다.

5분 인터뷰

2월 6일~17일까지 선교지 방문하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

회교권 선교지역의 확고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선교지 방문을 위해 출국을 앞둔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잠시 만나 이번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방문하는 선교지는 어느 곳입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오는 길에 터키를 잠시 들러올 예정입니다.

· 이번 선교지 방문에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정책은 북방선교와 회교권 선교 둘로 되어 있습니다. 북방선교는 중국의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을 자으면서 시작에 되어졌는데 회교권 선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집트에 가서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곳에 이준교 선교사가 그곳에서 100만불 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 두번째는 그곳에 수단인이 많이 와 있다고 합니다. 수단인 선교가 그야말로 회교권 선교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아야겠고, 세번째는 김명대 선교사가 거기에 가 있는데 회교권 선교를 위한 준비

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확인하며 격려하려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집트에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김주경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오랫동안 있었지만 우리가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지연구소나 여러 가지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지사정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 장로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그 분들과 충분히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돌아오는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아시아를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육호기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안은 단

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현장인 그 곳을 직접 보고 현대적인 의미같은 것을 적용시킨다고하면 요한계시록 강해가 좀더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겠느냐하는 아주 소박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제안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터키 지역인데 그곳이 또한 회교권 선교의 핵심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들을 보낸 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데 역점을 두었는데 기왕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는 길에 터키 지역의 회교권 선교에 뭔가 길이 열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한 이틀 정도 거기에 들러서 오도록 스케줄이 조금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마디로 회교권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회교권 선교에 해당됩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에는 기획실장 윤명석 장로, 기획위원장 노광현 장로, 선교위원장 남선우 장로가 동행한다. 이는 선교지 방문이 그제 여행 정도로 인식되어온 한국의 실정에서 이번 방문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지에서 구체적인 협력의 힘이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선교지 방문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일들이 생기기를 기도하자. <형>



충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1 ●

일곱 나팔 재앙(2)

(계 8:8-13)

오 늘은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번째 나팔 재앙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8절)

두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첫번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더라”(출 7:20,21)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물의 오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 공해를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오염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산이 바다에 던지워졌다 하지 않고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산과 같은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국을 뜻할 때 산으로 비유합니다(사 2:2, 숙 4:7, 렘 51:25, 단 2:35). 그런데 본문에는 “불붙는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왕국은 왕국인데 막 불붙는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혁명에 의해서 큰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체첸공화국을 소련이 공격했죠? 체첸은 본래 소련의 영토 중 일부였는데 이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가 엘친 대통령이 군대에 명령을 해서 비행기와 탱크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체첸공화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불붙는 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는 예레미야는 가장 큰 제국인 바벨론 제국을 산으로 표현했습니다(렘 51:25).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때로 배교적인 교회를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반역하듯이 교회중에도 때로는 배교적인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교적인 교회를 그의 입에서 토해내어서 이방 나라들이 교회를 멸망시킬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8,9절) 여기에 보면 3중 심판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둘째는 바다의 생명을 가진 것의 삼분의 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사분의 삼이나 되는 부분이 오염이 되고 고기가 죽고 배들이 깨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기도의 응답과 함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 세번째 나팔 재앙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썩이라”(9절)

9절의 말씀은 바로 물 심판입니다. 지난번 낙동강의 오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썩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별은 교역자들입니다(계 1:20). 그런데 보통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나 교단의 총회장 같은 큰 별이 떨어집니다.

세번째 나팔 재앙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썩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교역자들이 타락해서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수를 먹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썩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주어서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재난이나 슬픔을 뜻할 때 썩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비진리를 가져다주는 세 가지 종류의 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둘째로 썩은 급진적인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를 통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총회신학교를 비롯한 모든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썩은 허무주의 사상과 이단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인 교역자들의 타락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킨 것처럼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물론 이거니와 한국 강단에 이런 썩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11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썩을 먹고 영혼이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행위를 하고 세속화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킨 것처럼 강단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물론 이거니와 한국 강단에 이런 썩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마라의 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쓴 물을 단 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3. 네번째 나팔 재앙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12절)

이것은 흑암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은 모세 때 애굽에 일어났던 아홉번째 재앙과 유사한 재앙입니다(출 10장). 성경에 보면 천체 심판에 관해서 예레미야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 37장에도 나오고 요엘 2장에도 나오고 아모스 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번째 나팔 재앙으로 흑암이 임할 것인데, 천체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UCLA라 하면 LA에서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그 학교의 맥도널드라는 교수는 ‘환경의 파멸’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기 속에 어떤 물체를 집어 넣으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변화가 일어 나는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이러한 천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이 이러한 천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암흑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암흑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아닌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 화가 있으리라”(13절)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종류의 나팔 재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아직도 세 번이나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선포한 것이 아니고 독수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직도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더 남아 있는데 훨씬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번째 나팔 재앙과 세번째 나팔 재앙은 물과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번째 나팔 재앙은 천체 심판으로서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의 끝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문자적인 가능성과 함께 영적인 암흑시대가 이 땅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각성해야 합니다. 화화 화가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우리의 강단에, 교회의 강단에 공산주의의 썩, 자유주의 신학의 썩, 허무주의사상, 이단사상의 썩이 나타나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모든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가 항상 팔팔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항상 솟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충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살며 생각하며 *

올바른 청지기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김 현 자
<집사, 6-2교구>

한해를 마무리하다 보니 난마와 같이 엉켜드는 머릿속은 무언가?

내 나이가 이미 그렇거니와 주님 부르심이 멀지 않음은 곳곳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위인이 부족하여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과 봉사는 차치하고라도 잊고 지나친 일이 적지 않음에 보람을 거두기 보다는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마무리되는 성실은 것이다. 내년에 대한 다짐으로 자위할밖에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대신 주님 앞에 바치는 기도가 마련되었

“높으신 곳에 계신 거룩하신 이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 육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과 교만과 무절제, 또한 당신께 위배되는 모든 분노와 오염된 정신을 용서하소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자신을 이김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믿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 당신의 이름을 방패로 진정한 의를 베풀게 하소서.”

굳이 신학을 공부하였대서가 아니라 나름의 소명의식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중명이 되어 보겠다는 여망 때문이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동양론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성경은 내게 이 점을 너무도 분명히 일깨워 주시고 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메시지는 곧 예수님이 같이 하신 내 교회로부터 발전하여 세칭 지구촌으로 묶인 온 인류의 복음화를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 주지할 바는 바로 그 단계에 대한 합리성이다.

나를 비롯한, 내가 묻혀 있는 곳의 정돈에 선행되어야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내 좁은 소견이다. 그곳이 어디인가? 내 신앙의 뼈를 묻을 곳, 즉 교회라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교회에서 안타까운 적이 많았음을 새삼 고백한다. 주 안에서 묵인 형제로서 용서와 사랑이 미비할 때가 그런 때이다. 입으로 부르짖는 것에 대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교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때문이다.

자성의 의미가 포함된

이 모자란 언어에

내 형제들이 일꾼이라도
사랑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욱 더 정진하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

해 내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도둑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몸 되어 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는가를 새삼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룩하신 그 자태를 감추시고 세상에 나실 때에 그분의 표상은 ‘말기유’였다. 그리고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으며 척박한 땅 유대에서 잔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시매, 그 분이 우리에게 중용하신 삶을 어찌하여 그렇게 살다 가셨느냐는 우물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말이다. 몸소 행하시도 몸소 보여주신 그 분께는

진실로 모든 찬미란 찬미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찬미로 그친다면 그 분은 기뻐하지 않으시리니 우리는 그 분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제각기 안고 있다. 그 분이 지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봉사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이를 의식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힘쓸 때에 진정 그분의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구에 합당할 것이다.

명분이 필요하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나 이 또한 이로운 일임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서는 자, 과연 누구인가?

분명 표면상으로는 봉사요, 희생이거늘 자신의 어깨에 힘 주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평범한 이름 석자에 금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혹은 직분의 허상에 취한 것은 아닌지..... 직분이란 결국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의 무게를 더해주는 것이거늘!

어중잡은 글을 써내려가며 나는 내 자신이 말할 자격 있는가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아울러 심한 자책으로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담는다.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교회, 내 형제를 사랑하는 때문이다. 자성의 의미가 포함된 이 모자란 언어에 내 형제들이 일꾼이라도 사랑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욱 더 정진하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한다.

“형제여, 사랑합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이·련·일·은
고·침·시·다

교회비품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

교회의 비품을
나의 집의 것과 같이
여기며 사용합시다

우리 교회는 본당과 각 예배실 외에도 많은 부속실들이 있다. 특히 교육관은 각 층마다 집회실과 교사실 또한 학생 면려회실이 있어 주일에는 하루 종일 붐비고 있다.

각 부속실에는 여러가지 비품들 - 탁자, 의자, 캐비넷 등의 기물들이 있는데 어느 방을 가보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모두가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 비품과 기물뿐만 아니라 출입문도 마찬가지다. 출입문의 시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많다. 또한 어린이들이 선교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다 놀러 놓고 내리는 장난을 하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방을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여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이 제대로 제자리에 없다보니 그렇게 됐겠다고 생각은 해 보지만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과할 수 없다.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곳이기에 질서와 양보와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도, 절차를 밟기가 귀찮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자기 부서의 서류가 들어 있다고 마구 부수어 열고, 다음에 다른 부서가 사용한다고 마음대로 여지려 놓는다면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아무리 함께 사용하는 곳이라고 해도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각 부서간에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사용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한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은 정리정돈과 소독, 문을 잠그고 나가는 일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당 관리를 유별나게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도 적절하게 관리할 방안이 없어 애먹고 있다.

교회당과 교회당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가 이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다. 또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참으며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교회의 물건들을 내 물건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교회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고 서로를 위하여 아끼며 살아가자.



시

악 상

하 한 나

(가브리엘찬양대원, 사랑부 교사)

주님,
당신의 환상이 안개처럼 녹아 흐릅니다

당신의 음성은 뭉툭한 안개 속에서도
이슬 머금어 출렁거립니다

당신이 계신 거리는
무지개빛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난 아무런 고통도 불안도 없이
마음껏 당신의 환영을 고릴 수 있습니다

오션지 위 정교한 음표만 있어준다면

그 속에 당신은 언제나
순결한 사랑을 부르는 음향이십니다

무덤 같은 고적의 심연 속에서도
당신은 언제나 향기로운 의지를 주는
단 하나 변함없는 동무이셨습니다

당신의 힘찬 속삭임은
강렬한 선율에 감싸오는 흥분입니다

당신은 슬픔처럼 고여 있는 웅덩이에
한 줄기 순수한 빛이십니다

토·막·소·식

- ◆ 유아부(만 3~4세, 교육관 212호)는 부모님들에게 아기들을 믿음과 신용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각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1부 예배는 8시 50분, 2부 예배는 10시 50분에 시작한다.
- ◆ 초등5부는 24일(화)에 찬양대원 및 반장·부반장·봉사위원(현금) 수련회를 베다니홀에서 가졌다.
- ◆ 중등 1·2·3부는 1월 20일(금)~21일(토)까지 기도원에서 중등부 연합 임원 수련회를 가졌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모인 이번 수련회는 김희수 목사(중등1부)의 '충성된 사람', 김광국 목사(중등2부)의 '일꾼의 신앙 자세'의 두 차례 특강이 있었으며, 공동체 훈련과 극기훈련을 겸하여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기도했다.
- ◆ 대학부는 2월 6일(월)~9일(목)까지 충현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로 모인다. '보라 지금은 성령받을 만한 때요 이제 부흥의 날이로다'라는 주제로 모이며 회비는 18,000원이다. 또한 2학년 예비조장 훈련이 매주 토요일 2시~5시에 메추라기홀에서, 6월부터 조장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헌신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 27일(금)에는 대학부 전체 철야기도회를 충현기도원에서 갖는다.
- ◆ 청년2부는 금년들어 매주 집회시에 지도 김정우 목사의 시편강해가 진행되고 있다.
- ◆ 장년1부는 2월 18일(토)~19일(주) 이한수 목사를 주강사로 제1회 겨울수련회를 갖는다. 주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이다. 40대 남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 ◆ 장년3부는 95년도 부흥기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1차 2월 13일~3월 19일 · 2차 7월 3일~8월 13일 · 3차 11월 13일~12월 24일
- ◆ 새가족양육부는 2월 12일 처벌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 지정곡은 340장, 460장, 520장 중 1곡을 선정하고 자유곡은 1절만 부른다.
- ◆ 예배다부는 신앙상담이나 수화통역, 취업문의, 결혼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겐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중 선교관 2층 제2교역자실에서 이준우 강도사님과 만나도록 하고 있다. 그외 시간은 미리 약속을 하면 된다. 또 오늘(1월 29일)에는 일본 사가현 농아 청년부 임원 7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여 III부 예배(수화통역)와 1시 예배다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안에서 좋은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2월 20일~22일까지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기도로 준비하여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부목사 초빙 안내

충현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와 교회 교육을 연구하실 부목사님을 초빙코자 합니다. 이 방면에 소명을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뜻을 가지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역부서: 1) 청소년(고등부·대학부·청년부) 지도 목사
2) 교회 교육연구소 지도 목사
2. 자격
1) 충신대 신대원 졸업자
2) 해당분야에 소명감과 열정이 있으신 분
3) 해당분야를 전공하시고 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해당분야에 대한 자기의 비전 중(택일)
4) 당회장 혹은 기타인의 추천서
5) 충신대 신대원 졸업증명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4), 5), 6)은 면접 이후 제출해도 가함
4. 제출기간: 1995년 2월 24일까지
5. 면접: 1995년 3월 3일 (개인별로 면접시간 사전 통보)
6. 제출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문의 552-8200, F 563-3932)
1995년 2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인사위원회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묵상과 성서강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

700-4403

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

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현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오늘 강남교회 당회원 헌신예배 설교
· 신성중 목사님: 능력으로 날마다 붙들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구정을 전후하여 우상숭배 등 범죄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쓰레기 종량제에 모두 협조를

쓰레기 분리수거 요령

쓰레기 분리수거에 종량제 성패가 달려
분리수거된 쓰레기는 새로운 자원으로 돌아와

우리가 버릴 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 ◆ 종이·현의류(신문지·현책·잡지·박스·포장지·우유팩·음료수팩·현우)
- 고지는 신문, 잡지, 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어 보관합니다.
- 우유팩, 음료수팩 등은 내용물을 비운 뒤 납작하게 눌러 보관합니다.
- 현의류, 담요 등은 묶어서 부피를 줄여 보관합니다.
- ◆ 캔류(알루미늄캔·철캔·부탄가스용기·라이터 가스용기 등)
- 캔 속의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뚜껑 분리형인 경우 뚜껑을 캔 속에 넣고 캔을 납작하게 쥐그려뜨려 보관합니다.
- 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은 후 쥐그려뜨려 보관합니다.
- ◆ 병류(음료수병·약병·맥주병·소주병 등)
-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으로 된 뚜껑을 제거합니다.
- 병에 들은 내용물은 비워서 보관합니다.
- ◆ 플라스틱류(식료품통·삼푸통·요쿠르트병·쌀포대·바가지 등)
- 내용물을 비우고 포대류는 접은 후 묶어서 보관합니다.
- ◆ 고철류(스텐그릇·수저·냄비·동파이프 등 각종 철제품)
- 고철은 일반고철과 스텐, 양은 등으로 분류 보관합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 신문잡지류
· 신문지는 다시 신문지로 재활용되거나 박스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잡지류도 박스나 골판지 등으로 훌륭히 재생됩니다.
- ◆ 우유팩
·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양질의 종이로 전량수입하며, 비닐막을 제거한 후 고급 화장지로 다시 태어납니다.
- ◆ 빈캔류
· 철캔은 용해해서 건축자재나 기타 철제품으로 재활용되며 알루미늄캔 역시 고온으로 용해해서 다시 알루미늄캔을 만들거나 각종 부품으로 재생됩니다.
- ◆ 빈병류
· 각종 병들은 세척되어 몇 번이고 재사용됩니다. 그외의 병들도 파우리(Cullet)로 새로운 병을 만드는데 우수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 ◆ 폐플라스틱류
· 삼푸통, 세제통, 식기 등 모두 훌륭히 재활용됩니다. 정화조, 전선피복, 건축자재, 합지박, 물통 등으로 재생됩니다.
- ◆ 빈상자류
· 각종 상자, 포장재 등은 골판지, 골심지 상자로 다시 재활용됩니다.

